



# 광남일보



주간 제 807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음력 3월 6일)

## “통합특별시에 산업기반 조성·투자 특례 전폭 지원”

### 김민석 총리, 출범 준비상황 점검...제도·재정 지원 공식화 조직 자율권·재정 인센티브 약속...행정공백 최소화 당부 전남도·광주시, 포괄적 권한이양·통합비용 573억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70여일 앞두고 정부가 제도·재정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9·19면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특례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행정 공백 없이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조직 자율권 보장과 재정 인센티브뿐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과 투자요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속

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전남·광주부단체장,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직·인사·예산 개편, 시행령과 자치법규 제정, 민원 시스템 통합,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행정과 교육 체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구조를 고려해 제도 정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행정통합 비용 573억원 지원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의 자율적 활용 보장, 공모사업 및 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 불이익 방지, 포괄적 권한 이양과 이에 따른 인력·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통합 이후 초기 행정 안정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법·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전달

했다. 전남도는 조직 통합과 행정 시스템 전환, 교육행정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지방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

양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원 시스템 통합과 행정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자 국가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과제”라며 “법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가 공동으로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남도와 광주시는 양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체를 매주 운영하며 조직, 재정, 법령, 전산, 행정서비스 등 핵심 분야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양측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과제를 정리하고 출범 시점에 맞춰 행정 체계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두 지역 간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는 오랜 기간 생활권을 공유해 온 지역인 만큼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조직과 권한 재배분을 포함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연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기업유치 효과적인 카드는 ‘값싼 전기 공급’

### ■광주상의, 통합시장에 바라는 기업인 의견조사

#### 보조금·세제보다 ‘전력비 절감’ 우선...앵커기업 유치도

민선 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은 ‘저비용 전력 공급’을 가장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카드로 꼽았다. 일회성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보다 전력료 절감 같은 ‘상시 비용 구조’ 개선이 기업 유치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뚜렷해졌다. 2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바라는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저비용 전력공급 체계 구축(26.4%)’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26.4%)’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전통적인 경제정책 수단인 ‘투자 보조

(44.3%)’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광주 여건 개선 요구도 뚜렷했다. ‘청년 주거 및 도시 생활 인프라 개선(74.5%)’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국제적 수준 대형 테마파크 유치(48.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지역 기업 106개사가 참여했다. 광주상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현행 전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력망 구축 비용과 에너지 손실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전소가 위치한 비수도권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알림

####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이승재 영화평론가  
23일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 호텔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4월 23일(목) 오후 6시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강사는 이승재 영화평론가로 다양한 대중영화를 통해 인간관계와 조직 내 소통의 본질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청강사: 이승재 영화평론가  
△주 제: ‘전만영화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  
△일 시: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6시  
△장 소: 브리브광주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 5층(구, 라마다호텔)  
△기타사항: 오후 6시부터 석식 제공(17층 파라뷰)  
△문의: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062-370-7090)  
△주 최: **광남일보**

### 코스피, 6388.47 마감

#### 두달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21일 종전 협상과 SK하이닉스 등 호실적 기대감에 2% 넘게 올라 두달여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45p(1.34%) 오른 6302.54로 출발해 169.38p(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2월 26일과 27일 각각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6307.27)와 장중 사상 최고치(6347.41)를 동시에 돌파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520억원, 785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은 2조351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특히 SK하이닉스(4.97%)는 122만4000원으로 마감해 12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2.10% 상승한 2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기회) 특별시

내일이 밝는 광주  
기획도시 광주